

# 「治平要覽」考\*

A Study on the *Chipyongyoram*

김 순 희(Kim, Soon-hee)\*\*

## ◁ 목 차 ▷

|                 |             |
|-----------------|-------------|
| 1. 緒 論          | 3.2 記述方式    |
| 2. 「治平要覽」의 編纂背景 | 3.3 中國 歷史記述 |
| 2.1 世宗朝의 圖書編纂   | 3.4 韓國 歷史記述 |
| 2.2 世宗의 編纂意圖    | 3.5 內容上의 特徵 |
| 2.3 編纂 및 刊行背景   | 4. 引用書目 分析  |
| 3. 「治平要覽」의 體裁   | 5. 結 論      |
| 3.1 凡例分析        | <참고문헌>      |

## < 초 목 >

본고는 조선 세종대에 편찬된 「治平要覽」을 서지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治平要覽」의 편찬 및 간행 과정과 체재 및 구성, 기술 방식, 기술상의 특징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治平要覽」은 1441년(世宗 23, 辛酉) 6월에 세종이 확실한 편찬 의지를 가지고 당시 知中樞院事였던 鄭麟趾에게 편찬을 명하여 5년 뒤인 1445년에 완성한 150권의 巨帙이다. 「治平要覽」은 중국과 한국의 역사 중에서 군주에게 鑑戒가 되는 내용이나 백성들에게 권선징악의 유교적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내용들을 선별하여 수록해 놓은 저술이다.
2. 세종이 이 방대한 저술의 편찬을 시도한 것은 크게 역사를 통하여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것을 후대의 통치자들에게 전해 주고 싶은 의도의 실현이었다.
3. 「治平要覽」은 편찬 직후에 간행되지 않고 세조 때李克權에게 추가교정을 하였으며 인쇄된 것은 그 후인 中宗代이다.
4. 「治平要覽」은 유교적 가치를 천명하기 위한 목적을 시작으로 편찬되었다. 수록 대상에 한계를 두지 않았으며, 최대한으로 저술의 객관성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5. 「治平要覽」은 117종에 달하는 서적을 인용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宋代의 史書와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지원에 의한 논문임.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siva@cnu.ac.kr)

접수일: 2006년 5월 11일 최초심사일: 2006년 5월 12일 심사완료일: 2006년 6월 16일

性理書들이 주로 인용된 것이 주목된다. 이는 유교국가를 지향하고 성리학을 치국의 이념으로 삼았던 세종대의 실상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要語 : 治平要覽, 世宗, 韓國歷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ipyungyoram* published in the reign of King Sejong in the Joseon Period. The procedure of its compilation and publication, the structure and organization, and the method and characteristics of its description are analyz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With the firm intention of publishing the *Chipyungyoram*, King Sejong ordered Jeong Inji, who was the Jijungchuwonsa, to compile the book in 1441. The *Chipyungyoram* composed of 150 volumes was completed 5 years later in 1446. The *Chipyungyoram* mainly contains the cases which could be set an example to kings, and teach the common people the lesson to encourage their good conduct, selected from Chinese and Korean history

2. The reason why King Sejong wanted to compile this vast volumes of the *Chipyungyoram* was to learn how to govern the country well through history and pass the lesson to the descendants.

3. The *Chipyungyoram* was not published shortly after compilation, but proofread by Yi Keuggi in the reign of King Jungjong, and finally printed in the reign of King Sejo.

4. The purpose of compiling the *Chipyungyoram* was to encourage Confucian values. Therefore, the *Chipyungyoram* did not have any limit on what to include, and tried to keep the objectivity in writing.

5. The *Chipyungyoram* quoted 117 books, especially history books written in the times of the Song Dynasty and moral books based on Sung Confucianism. It evidences that King Sejong had regarded Confucianism and Sung Confucianism as the principle of his government.

Key words : *Chipyungyoram*, Sejong, Korean history

## 1. 緒論

조선 초기 세종 시대는 우리의 역사상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되었으며 찬란한 문화의 성취가 이루어진 시기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도서의 편찬과 인쇄 사업의 관점에서 세종조는 그 이전의 어느 시대와도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한 시기였다.

본고는 조선 세종대에 편찬되어 중종 11(1516)년에 갑진자로 인쇄된 「治平要覽」을 서지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고의 대상은 이우성씨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던 갑진자본 73책을 기본으로 여기에 일본 東洋文庫에 소장되어 있던 갑진자본과 일본 內閣文庫에 소장되어 있던 갑진자본을 첨부하여 하나의 완질로 갖춘 것으로 하였다.

「治平要覽」은 1441년(世宗 23, 辛酉) 6월에 세종이 확실한 편찬 의지를 가지고 당시 知中樞院事였던 鄭麟趾에게 편찬을 명하여 5년 뒤인 1445년에 완성한 150권의 巨帙이다. 이 저술과 양적으로 견줄 수 있는 서책은 1434년(세종16)에 편찬된 「資治通鑑訓義」와 1438년(세종 20)에 149권으로 완성된 「綱目通鑑訓義」 정도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세종은 책의 편찬 이전에 書名을 내려 이 저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있음을 표명하였을 정도이다. 「治平要覽」의 편찬을 감독한 사람이 후일의 世祖인 수양대군이었다. 세조는 1458년(세조 4) 9월에 「東國通鑑」의 편찬을 명하면서 書名을 미리 정하여 내렸는데 이는 세종이 미리 서명을 지어놓고 서책의 편찬을 독려한 예를 따른 것이다.

「治平要覽」은 중국과 한국의 역사 중에서 군주에게 鑑戒가 되는 내용이나 백성들에게 권선징악의 유교적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내용들을 선별하여 수록해 놓은 저술이다. 일반 역사서와 같이 편년체나 기전체의 서술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내용 중심으로 왕조별로 서술해 놓은 것이 이 저술의 특징이다. 본고는 「治平要覽」의 편찬 및 간행 과정과 체재 및 구성, 기술 방식, 기술상의 특징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 저술을 학계에 소개하고자 한다.<sup>1)</sup>

1) 현재 학계에서 「治平要覽」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은 (金慶洙, 世宗朝 「治平要覽」

## 2. 編纂背景

### 2.1 世宗朝의 圖書編纂

세종조의 찬란한 문화는 그 시대에 이룩한 편찬 사업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편찬 사업을 통하여 조선조의 문화적, 사상적인 정리가 이루어졌고 정치와 제도의 기틀이 잡혔다고 할 수 있다.<sup>2)</sup> 세종은 도서의 편찬과 출판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던 군주이다. 세종은 도서의 편찬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인식하여 이 사업의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集賢殿의 학자들로 하여금 대부분의 도서 편찬을 하게 하였으며 造紙所를 확장하여 제지 기술을 개량, 발전시켰으며 鑄字所에서는 새로운 활자를 주조하여 혁신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sup>3)</sup>

定宗 원년 3월에 처음 설치된 집현전이 인재 양성과 문풍의 진작이란 차원에서 세종조에 더욱 정비되는 것은 국가의 정립에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종은 한 번 집현전의 관리가 되면 학문에만 전념하게 하고 다른 관청으로 전직을 금하였으며, 학사의 선발에도 신중을 기하여 최고의 문신을 선발하였다. 집현전은 학사들의 전문적인 연구 활동을 보장한 기구였으나 실제적으로 도서 편찬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설립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도서를 편찬한다는 것은 바로 학문 활동의 결과가 기록으로 구체화된 것임으로 당대 뿐 아니라 후대에 계속 이어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sup>4)</sup>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세종은

---

에 대한 연구, 忠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6)이 있는데 이것은 역사학계의 논문이고 서지학계에서는 세종조의 저술을 일반적으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언급한 것이 있을 뿐이다.

2) 崔承熙, “世宗朝의 文化와 政治,” 『世宗朝 文化의 再認識』 (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30.

3) 金允植, “世宗朝의 圖書 編纂 및 刊行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대학원, 1992), 124-125.

4) 金允植, 위의 논문, p.52.

집현전의 전문 학자들에게 세종조에 편찬된 도서의 대부분을 정리하게 하였던 것이다.

인쇄술의 발달은 이 시대의 도서 편찬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1420년(세종 2)에 만들어진 庚子字를 필두로 1434년 甲寅初鑄字, 1436년 丙辰字, 1447년 釋譜詳節字, 1448년 東國正韻 한글字, 1450년 安平大君字<sup>5)</sup> 등이 지속적으로 주조됨으로써 방대한 양의 도서가 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세종대에는 수많은 도서들이 편찬, 혹은 간행되었는데 이때에 편찬되거나 간행된 책을 보면 22분야의 무려 350 여종이 있음을 알 수 있다.<sup>6)</sup> 이처럼 이 시대에 여러 종류의 서적이 편찬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역사서류의 편찬이 가장 주목된다. 세종은 「資治通鑑」과 「資治通鑑綱目」을 편찬하여 중국의 역사를 정리하였으며 우리의 역사 기술은 「高麗史」를 지속적으로 改修함으로써 완성하였다. 「治平要覽」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 아래에서 편찬되었다. 사실 「治平要覽」은 역사적 사실을 시대순으로 나열하기 위하여 편찬된 역사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서 현실정치의 귀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치국의 방편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졌으므로 정치서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治平要覽」과 같은 해에 편찬된 「明皇誠鑑」도 대표적인 정치서이다. 이 책은 당나라 현종이 만년에 양귀비의 여색에 빠져 폐망하기에 이른 사실을 거울삼아 세종이 이조참판 李滄에게 명하여 엮게 한 것이다.<sup>7)</sup>

이와 같은 배경을 고찰해 볼 때 세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행하여 온 역사서 편찬의 경험과 높은 수준에 오른 제지 기술 및 인쇄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군주인 자신을 경계하면서 동시에 후대의 통치자들에게 감계의 뜻을 전해주기 위하여 「治平要覽」을 편찬하게 된 것이다.

5) 손보기, 「세종시대의 인쇄 출판」 (서울: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 1994), 참조.

6) 손보기, 위의 책, pp.111-128에서 「세종시대 엮어지고 펴낸 책」이라는 항목에서 이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

7) 金允植, 위의 논문, p.74.

## 2.2 世宗의 編纂意圖

세종은 「治平要覽」을 편찬, 발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뜻을 갖고 있었으며, 그 이유도 분명히 제시하였다.

무릇 정치를 하려 하면 반드시 전대의 다스려지고 어지러웠던 자취를 살펴봐야 하고 그 자취를 보려 하면 오직 역사책을 상고할 수밖에 없는데 주나라 이래 대대로 역사책이 있어 분량이 너무 많음으로 두루 상고할 수가 없다. 내가 송나라 학자가 만든 「自警編」을 보니 嘉言과 善行을 節로 나누고 類대로 엮어 간략하면서도 요긴하다. 옛 사람이 만든 책을 그와 같이 즐겁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 사람도 책을 널리 보기 어려운데 하물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여가에 어찌 널리 볼 수가 있겠는가. 이 또한 어렵도다. 지금 역사책을 상고하여 선악을 권장하고 징계할 만한 것을 뽑아 책으로 만들어, 내가 보는데 편리하도록 하고 후세 자손들에게 영원한 가르침이 되게 하라. 우리 동방에 나라를 세운지 유구하니 그 흥망성쇠를 몰라서 된단 말인가. 아울러 편입(編入)하여 너무 복잡하지도 너무 간략하지도 않게 하라. 이에 이름을 내려 「치평요람」이라 하고, 수양대군에 명하여 그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sup>8)</sup>

세종이 이 방대한 저술의 편찬을 시도한 것은 역사를 통하여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것을 후대의 통치자들에게 전해 주고 싶은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自警編」을 읽은 뒤 이와 유사한 저술을 편찬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으며, 여기에 자국의 역사를 도외시킬 수 없다는 자주적 각성이 더해져 이 책이 만들어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史學이 經學에 비해 중요시 여겨지지 않았으나, 세종은 사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었다. 세종은 경학은 體이고 사학은 用이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하므로 하나라도 치우치거나 폐할 수 없다고 인식하였으며, 당시의 학자

8) 「治平要覽」 治平要覽序, “命若曰 凡欲爲治 必觀前代治亂之迹 欲觀其迹 惟史籍是稽 自周以降 代各有史 然編簡浩穰 未易遍考 子近觀宋儒 所撰自警編 嘉言善行 分節類編 而務於簡要 乃知古之作書者 欲人之樂觀也 信乎多方矣 誠以人之於學 博覽無遺 實爲難也 況於人君 機政之假 其能博觀 斯亦艱矣 今宜考閱 史籍 其善惡之可爲勸懲者 撰次成書 使便觀覽 以爲後世子孫之永鑑 且吾東方建國 惟古興廢存亡 又不可不知 并令編入 毋失繁簡 仍 賜名曰 治平要覽 命首陽大君 監其事.”  
「世宗實錄」 23년 6월 癸巳條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음.

들이 경학에만 몰두하고 역사서를 읽지 않는 것을 개탄하였다.<sup>9)</sup> 경학과 사학을 상보적인 관계로 인식하는 세종의 학문관은 ‘經史合一論’의 역사인식으로 발전하였으며, 이 결과 經筵에서 「資治通鑑」과 「資治通鑑綱目」을 강론하였고 이는 많은 역사 관련 서적의 출판으로 이어졌다.<sup>10)</sup> 이러한 역사인식아래 세종은 勸善懲惡을 실천할 수 있는 교훈서의 개념을 갖는 서적의 편찬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던 세종에게 결정적인 계기를 준 것이 「自警編」이다. 이 책은 송나라의 趙善璿가 지은 역사서이다. 조선료는 宋太宗의 7세손으로 남해에서 살았으며 南宋의 말기에 태어났으므로 그가 기록한 것이 靖康시대에 이르러 그쳤으며 그 이후에는 朱子가 논의한 것을 간간히 뽑아 넣었다.<sup>11)</sup> 조선료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찍이 詩經의 抑篇을 읽었는데, 위나라 무공이 스스로 경계한 것으로 무릇 20장이다. 말의 뜻을 살펴보니 반복하고 간절하여 매우 아름답도다. 나는 신사년에 은퇴해서 구계에서 허물을 반성하던 여가에 국조의 여러 인물들의 언행을 수집하여 3년 만에 책이 되었으므로 이름을 「자경편」이라 하였는데, 대개 내가 능치 못한 바를 경계하고 신칙하여 만분의 일이라도 고인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다. 이 책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시장의 책장사인 서생이 「전형록」을 팔고 있었는데 그 중에 있는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실이 내가 편찬한 것과 간혹 유사하기에 그로 인해서 교육, 섭양, 호생, 사명 등 몇 개의 부문을 더 기록하여 자리 오른 쪽에 두고 나의 처음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스스로 기약하는 바이다. 가정 갑신년 정월 보름에 한국의 조선료는 서문을 쓴다.<sup>12)</sup>

조선료는 위에서 밝혔듯이 전대의 인물들의 행실을 수집하여 자신의 행동을

- 9) 「世宗實錄」 20년 12월 乙丑條 참조, “上曰 經與史 體用相須 不可偏廢 然今學者 或有牽於窮經而不讀史學.”
- 10) 金一煥, “「資治通鑑」과 「資治通鑑綱目」이 朝鮮初期 歷史學에 미친 影響,” 「弘益史學」, 제5집(1993. 6), 55-88. 참조.
- 11) 「四庫全書叢目」 卷123, 子部, 雜家類 7, 自警編9卷條, “璿 太宗七世孫 家於南海 善璿生南宋之季 而所載 至靖康而止 其後惟朱子議論 間爲採入”
- 12) 「自警編序」, “讀詩之抑 衛武公所以自警者 凡十二章 紬繹辭旨 反覆切至 猶歎休哉 予辛巳去國屏跡 龜溪省愆餘暇 集我朝諸公 言行越三年而成 編名以自警 蓋警飭予之所不能而庶幾古人萬一云耳 書甫成 市書徐生售典刑錄 嘉言善行 疇分品列間類 予所編 因廣教育攝養好生使命 數門 置之座右 期無負初意云 嘉定甲申 正月望 漢國趙善璿序”

바로잡는 鑑戒의 목적으로 1224(宋 嘉定17)년에 이 책을 편찬하였다. 「自警編」의 목록을 살펴보면 9類에 56개의 目으로 이루어져 있다.

學問類：學問 見識 器量  
 操修類：正心 檢身 誠實 操守 定力 清廉 儉約 無嗜好 謹言語 韜晦 攝養 好生  
 齊家類：孝友 教子孫 賑親族 居處  
 接物類：交際 君子小人 樂善 教育 厚德 報德不報德 濟婚葬  
 出處類：出處 義命 恬退 處患難 休致  
 事君類上：忠義 公正 德望 得體 講讀 諫諍  
 事君類下：憂國 薦舉 用人 善處事上下 使命  
 政事類：政事 鎮靜 信 通下情 濟人憂民附 救荒 救弊 辯誣 獄訟 財賦 兵 制勝  
 拾遺：議論反覆 報應

이 책의 내용은 유학적 이념이 반영되어 있음을 목록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학을 治國의 방편으로 삼고 있던 조선초의 상황에서 이 책은 집권자들의 기호에 맞았으며, 이로 인해 이와 유사한 서책의 편찬을 계획하게 된 것이다. 세종 이후에도 「自警編」에 관한 君臣의 관심이 깊어 마침내 1724년(景宗 4)에 전 5卷5冊으로 출판하였다.

### 2.3 編纂 및 刊行過程

세종의 명을 받아 편찬 작업에 착수한 학자들은 5년 후인 세종27(1445)년 3월에 일을 마치고 책으로 제본하여 진상하였으니 총 150권의 巨帙이었다.<sup>13)</sup> 이 일을 총관한 사람은 鄭麟趾이다. 정인지는 「治平要覽序」에서 편찬 과정을 소개했는데 그 대략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학문에 능한 선비를 집현전에 모아 일을 나누어 맡앴음.
- ② 중국은 周나라에서 당시의 明나라까지, 우리나라는 箕子에서 高麗까지를 대상으로 함.
- ③ 名教와 治亂에 관한 사실을 널리 참고함.

13) 「世宗實錄」 27년 03월 癸卯條, 참조.

④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첨부하여 해석함.<sup>14)</sup>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저술은 역사서가 아니므로 중국의 경우 黃帝나 堯舜의 치세를 기록할 의도가 없었을 것이며, 우리의 역사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편찬의 시점이 조선의 개국 직후였으므로 고려까지가 기술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세종은 이 사업에 참가한 학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여러 차례 잔치를 베풀어 격려함으로써 이 서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sup>15)</sup> 「治平要覽」의 편찬을 주도한 것은 집현전의 학자들이었으므로 지금까지 학계에서도 이 책이 집현전에서 완성되었다고 생각해 왔다.<sup>16)</sup> 그러나 世祖 5년 11월 條의 기록에 의하면 편찬에 참여한 학자들 중에서 集賢殿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李文炯, 尹子潑, 許琮, 李淑斌, 李壽男, 金漬, 李介甫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sup>17)</sup> 따라서 「治平要覽」의 편찬에는 집현전 학사만이 아니라 능력있는 문신 학자들이 총동원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방대한 저술이 편찬 직후에 간행된 것은 아니다. 父王 세종의 명으로 편찬을 감독했던 수양대군은 후에 세조로 즉위한 후 「治平要覽」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세조는 150권을 전부 열람한 뒤에 이 저술에 첫째, 여러 사람이 부문을 나누어 찬집하였으므로 취사선택이 달라 구성의 통일성이 부족하며, 둘째, 정인지의 교정이 자기중심적이고 정밀하지 못하다는 사실 등의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sup>18)</sup> 그리고 당시 좌승지였던 李克堪에게 추가교정을 맡겼는데, 이극감도 정인

14) 「治平要覽」治平要覽序, “是 選文學之士 聚集賢殿 分科責成 搜討群書 中朝則起成周迄于國朝 東國則始箕子 終於高麗 馳騁上下 泝流尋源 運祚之長短 國勢之離合 一治一亂 可法可戒者 包括無餘 至若事之關名教 言之係治體者 雖在夷狄而莫敢遺 雖在匹夫而不之略 雜見於傳記者 則會粹而極其明 備錯出於彼此者 則類聚而敘其本末 附以諸家之訓 以釋其旨 補以先儒之論 以暢其義 凡所去取悉稟睿斷 涉五歲而就緒” 참조.

15) 「世宗實錄」24년 12월 丙午條, 26년 11월 癸巳條 참조.

16) 崔承熙, 「世宗朝의 文化와 政治」, 「世宗朝 文化의 再認識」(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882)에서 이 책이 집현전에서 편찬되었음을 밝혔다.

17) 金慶洙, 앞의 논문, p.14.

18) 「世祖實錄」5년 9월 庚辰條.

지의 경솔한 필치를 비판하였으며 교정을 담당하였다.<sup>19)</sup> 그러나 「治平要覽」이 인쇄된 것은 그 후인 中宗代이다.

남곤이 아뢰기를 “교서관의 서적은 인쇄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흉년 때문에 중단하고 있으나, 「치평요람」 같은 것은 인쇄를 아주 마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의 “인쇄를 마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sup>20)</sup>

이 해가 중종 11년이니 서기 1516년이다. 이때에도 인쇄가 완성되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현재 활자본의 일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인쇄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이때 사용한 활자가 성종 15년에 만든 甲辰字라는 사실이다. 이 책의 卷首 맨 앞에 실린 金宗直의 「新鑄字跋」은 갑진자를 주조한 동기에 대하여 쓴 것인데 그것이 여기에 실린 것은 이 책이 신주 갑진자로 인쇄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sup>21)</sup> 그러나 이 「治平要覽」은 잦은 병란에 망실되어 완질이 전하지 않는다. 이후의 군주들도 「治平要覽」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며 완질이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sup>22)</sup> 그러나 워낙 방대하여 다시 인쇄를 시도하는 일은 없었다.

### 3. 「治平要覽」의 體裁

#### 3.1 凡例 分析

「治平要覽」은 체계적인 편찬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성방법을

19) 「世祖實錄」 5년 9월 癸未條.

20) 「中宗實錄」 11년 9월 辛巳條. “南裒曰 校書館書籍 方印未畢 以凶年停役 如治平要覽宜可畢印 上曰 畢印可也.”

21) 이우성, 「국역치평요람」 해제 (서울: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 2001).

22) 「仁祖實錄」 7년 7월 丁酉條.

「肅宗實錄」 5년 4월 丙戌條.

「英祖實錄」 30년 3월 癸丑條.

「正祖實錄」 20년 12월 丙戌條. 참조.

취하고 있다.

1. 중국은 주초부터 국조까지, 동국은 기자부터 고려까지 모든 강상에 관계되는 것과 정치의 득실과 전쟁의 승패가 권장되거나 징계될 만한 것은 사서·오경을 제외하고 여러 서적을 수집하여 「자경편」의 예에 따라서 단락에 따라 편집하고 연대순으로 편집하지 않았다.
2. 「자치통감」의 예에 따라서 주·진·양한·진·송·제·양·진·수·당·오대·송·원을 주로 하여 권마다 맨 먼저 국호를 쓰고 절마다 맨 먼저 모제라 쓰되 시호가 없으면 제모라 쓰고 정통 이외의 제를 칭한 자는 모두 모주모라 칭하였다.
3. 한 가지 일이 여러 서적에 섞여 나와서 상세하고 소략한 것이 같지 않은 것은 아울러 채택하여 서로 보완해서 상세하도록 힘썼다.
4. 찬술한 서적의 뜻이 어렵고 깊은 곳에는 본문의 주해를 참고하여 넣고 본문의 주해가 없는 곳은 운서와 여러 서적의 주석을 참고하여 넣었으며 혹 구절을 때는 글자를 써서 구두를 편하게 하였다.
5. 사방 오락케의 일이 권장이나 경계가 될 만한 것도 아울러 수록하였다.
6. 여러 학자의 의론은 각절 아래에 붙였다.<sup>23)</sup>

위의 범례를 살펴보면 몇 가지의 특징적인 사항을 알 수 있다. 첫째, 유교의 경전인 四書五經을 제외했다는 사실인데, 이는 역사기록을 위주로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경전을 제외한 것이지만 「大學衍義」·「小學」·「禮記註」·「尚書纂註」·「論語集註」·「論語輯釋」 등 경전에 버금가는 서적을 참고하였음이 인용목록에 보인다. 둘째, 역사적 사실을 주로 기록했지만 연대순으로 편집하지 않고 단락별로 편집한 것이다. 이는 「自警編」의 예를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自警編」처럼 부문을 나누어 편집하지는 않았다. 셋째, 유사한 자료를 최대한

23) 「治平要覽」, 凡例.

- 一. 中朝起自周初 至于國朝 東國始自箕子 至于高麗 凡關綱常 政治得失 攻戰勝敗 可爲勸戒者 除四書五經 外蒐輯諸書 依自警編 列逐段纂次 無編年.
- 一. 依通鑑例 以周秦兩漢晉宋齊 梁陳隋唐五代 宋元爲主 每卷首書國號 每節首 書某帝. 無諡則書帝某 正統外稱帝者 皆稱某主某.
- 一. 一事雜出諸書 詳略不同者 兼採相補 務令詳備.
- 一. 所撰諸書 文義艱深處考入本文 註解 無本文 註解處韻書及 諸書 註釋 考入或書 句字 以便 句讀.
- 一. 四夷之事 可爲勸戒者 亦并蒐錄.
- 一. 諸儒議論 附于各節之下.

수집하여 보완함으로써 기술의 완벽을 기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유명인의 일화가 아니더라도 교훈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기록에 포함시켰다는 사실도 들 수 있다. 목록을 도표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권수          | 해당왕조 | 권수          | 해당왕조 | 권수            | 해당왕조 |
|-------------|------|-------------|------|---------------|------|
| 권 1 ~ 권 14  | 周    | 권 59 ~ 권 64 | 齊·梁  | 권 99 ~ 권 100  | 後唐後晉 |
| 권 14 ~ 권 15 | 周·秦  | 권 64 ~ 권 67 | 梁·陳  | 권 100 ~ 권 101 | 後晉後漢 |
| 권 15 ~ 권 40 | 秦·漢  | 권 67 ~ 권 70 | 陳·隋  | 권 101 ~ 권 102 | 後漢後周 |
| 권 40 ~ 권 52 | 漢·晉  | 권 70 ~ 권 95 | 隋·唐  | 권 102 ~ 권 142 | 後周·宋 |
| 권 52 ~ 권 56 | 晉·宋  | 권 95 ~ 권 97 | 唐·後梁 | 권 142 ~ 권 147 | 宋·元  |
| 권 56 ~ 권 59 | 宋·齊  | 권 97 ~ 권 99 | 後梁後唐 | 권 147 ~ 권 150 | 元·國朝 |

### 3.2 記述 方式

각 왕조가 시작될 경우 상란에 두 글자 내려 國號를 쓰고 행을 바꾸어 내용을 기술했다. 한 단락이 끝나면 별다른 표시 없이 행을 바꾸었다. 중요한 내용의 경우에는 역사서의 史評과 같이 ‘馬氏曰’, ‘眞氏曰’, ‘柳宗元曰’ 등으로 시작하는 해설을 첨부시켜 놓았는데 이 글은 상란에서 한 글자씩 떨어져 있다. 간혹 ‘權近曰’로 시작하는 해설이 있는데 이것은 『東國通鑑』에서 인용한 것이다.

본문내용의 註가 필요한 경우는 글자 밑에 小字雙行으로 써놓았다. 예를 들면, 卷75 唐 條에 新羅의 眞德女王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신라에서 비단에 수놓은 『太平頌』을 보냈다는 사실이 소자쌍행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의 왕은 왕호를 썼지만, 신라의 여왕들이나 고려의 왕은 이름을 직접 써서 차이를 두었다. 예를 들면 고려 恭愍王을 ‘麗王顓’이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조선의 왕들은 이성계는 ‘太祖’ 혹은 ‘高皇帝’, 이방원은 ‘太宗’으로 표기하였으며, 조선의 2대 왕인 定宗은 ‘恭靖大王’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sup>24)</sup>

24) 定宗이라는 묘호가 정해진 것이 1681년(숙종 7)이기 때문이다.

### 3.3 中國 歷史記述

중국 역사의 기술은 周나라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는 「書經」의 시작이 堯舜의 치세부터이며, 사마천의 「史記」가 黃帝로부터 비롯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점이다. 三皇五帝의 치적과 夏나라와 殷나라의 역사는 제외되고 文王(?~ B.C.793)의 등장부터 기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사실은 문왕이 활동하던 때가 殷末이었으므로 은말의 폭군이었던 紂의 악행과 학정, 무왕이 殷을 정벌하는 과정 등이 중국측 기록의 시발점인 셈이다. 다음은 「治平要覽」의 첫 내용이다.

계력은 태임을 아내로 맞아 창을 낳았다. 태임은 지임씨의 둘째 딸인데 단정하고 순수하며 성실하고 엄격하였으며 덕행이 있었다. 임신하여서는 눈으로 부정한 형상을 보지 않았고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입으로는 망령된 말을 내지 않았다. 문왕을 낳았는데 현명하고 성스러워 태임이 하나를 가르치면 백을 알았으니, 마침내 주나라 종실의 군자가 되었다. 태임을 일러 태교를 잘하였다 한다.<sup>25)</sup>

이 저술이 역사서였다면 문왕이 언제 태어났는가 하는 사실만 기록하면 그만이지만 문왕모인 太任이 태교를 잘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治平要覽」을 편찬하게 된 이유가 실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로 중국의 역대 왕조순대로 서술이 계속된다. 목록에는 明나라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元末明初의 왕조 교체 경위가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明나라 초기까지가 기록대상이다.

### 3.4 韓國 歷史記述

「治平要覽」의 내용은 대부분 중국 관련 기사로 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

25) 「治平要覽」卷1, “季歷娶太任 生子昌 太任者摯任氏中女也 端一誠莊 惟德之行 及其有娠 目不視惡色 耳不聽淫聲 口不出敖言 生文王而明聖 太任教之 以一而識百 卒爲周宗君子 謂太任爲能胎教.”

나라에 관한 기록도 있어 이 저술이 『資治通鑑』과 같은 중국의 역사서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총 150권의 분량에서 우리의 역사에 해당하는 것은 마지막의 4권에 지나지 않아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卷147에서 ‘國朝’라는 제목 하에 시작된 자국 관련 기사는 고려 공민왕과 신돈에 대한 것이어서 단군 이래의 역사는 도외시된 듯하다. 그러나 진질을 세밀히 살펴보면 우리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혹은 같은 시기의 경우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우리의 역사는 거의 기록하였다.

예를 들면, 백제 동성왕 살해 사건(권58 齊), 신라인 찬덕의 절개와 설씨녀 설화(권69 隋), 신라 선덕여왕의 지기삼사(권73 唐)를 비롯하여 다수의 기록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당태종의 고구려 침공과 안시성전투 같은 기록은 6條 9張에 이르는 분량으로 서술되어 있다.<sup>26)</sup> 그러나 우리의 역사가 독립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것은 이 저술의 취약점이다. 우리의 역사에 대한 첫 번째 기사이다.

무왕이 은나라를 이기고 나서 기자를 찾아가 천도에 대해 물으니, 기자가 흥범으로 설명하였다. 무왕이 기자를 朝鮮에 봉하였는데, 그를 신하로 삼지는 않았다. [조선은 동쪽 밖 해가 돌는 곳에 있으므로 이름지었다. 처음에 신인이 박달나무 아래 내려 왔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임금으로 세워 개국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하였는데, 실로 唐堯의 무진년의 일이다. 이를 檀君이라 하는데, 尸羅·高禮·남북 沃沮·동북 扶餘·濊와 貊을 다 단군이 다스렸다. 처음에 평양에 도읍하였다가 뒤에 白嶽에 도읍하였고, 禹임금이 도산에서 회맹할 때에 태자 부루를 보내어 조회하였다. 단군은 우·하를 지나 상나라 무정 8년 을미에 阿斯達山에 들어가 신이 되었으니, 나라를 다스린 것이 1,048년이다.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한 후에 조선은 서울을 당장경으로 옮겼는데, 지금의 황해도 문화현이다. 아사달은 일명 구월산인데, 문화현에 있다.] 그 뒤에 기자가 주나라에 조회할 때 옛 은허를 지나다가 궁실이 무너지고 벼와 기장이 난 것을 보고 기자가 마음 상하여, 곡하려 했으나 옳은 일이 아니고 읊하려 했으나 아낙네의 행동에 가까워서 그만두고는, 麥秀詩를 지어 노래하였다. 그 시에 이르기를, ‘보리 자라 무성하고 벼와 기장 윤이 난다. 교활한 그 아이는 나를 좋아 않더니’ 하니, 은나라의 백성들이 듣고는 모두 눈물을 흘렸다.<sup>27)</sup>

26)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에서 보다 치밀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다.

27) 『治平要覽』 권147, “武王既克殷 訪問箕子 以天道 箕子以洪範陳之 武王封于 朝鮮而不臣 (鮮音仙 朝鮮居東表日出之地 故名初有神人 降于檀木之下 國人立以爲君 開國號朝鮮 實唐堯之辰歲也 是爲檀君 尸羅高禮南北沃邱東北扶餘 濊與貊皆檀君之理 初都平壤後都白嶽 禹會도山遣太子 夫婁朝焉 檀君歷虞夏至商武丁八年乙未 入阿斯達山爲神 享國

이 기사를 살펴보면 箕子에 관한 내용보다 朝鮮에 대한 註가 더 주목된다. 조선이라는 이름의 유래와 단군의 출현 및 치세를 설명함으로써 자국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역사에 대한 마지막 서술은 태조의 즉위 과정을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3.5 内容上的 特徵

#### 1) 유교적 가치의 천명

「治平要覽」을 편찬한 이유는 조선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교적 가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군주가 통치하는 일에서부터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나 백성을 다스리는 일 등 치국에 필요한 사항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① 고려침의 찬성사 윤택이 졸하였다. 윤택은 좌부대언으로 관리 선출하는 일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임금이 그 자식을 관리로 임명하도록 하자 윤택이 아뢰기를 “명예와 기량이 지극히 중요하니 어질고 수고하는 신하들은 벼슬길이 막혀있는데 감히 신의 자식을 사사로이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윤택은 일찍 고아가 되어 아버지의 얼굴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때가 되어 제사 지낼 때마다 무덤에 올라 반드시 곡하며 슬픔을 다 하였다. 또 책에서 부자의 정에 대하여 쓴 것을 보면 눈물 흘리지 않을 때가 없었다. 항상 주머니 하나를 차고 다니면서 특별히 맛있는 것을 얻을 때마다 만드시 거기에 채워 어미에게 드렸다. 일찍이 연경에 갔을 때 길에서 버려진 금 백 냥을 발견 했는데 그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니 그 주인이 눈물 흘려 감사하고 갔다. 평생 벼룩을 입고 헤어진 뿔자리를 썼으나 편안하기 그지 없었다. 28)

一千四十八年 武王封其子于朝鮮 乃移於唐藏京 今黃海道文化縣 河斯達一名九月山 在文化縣 其後其子朝周 過故殷墟 感宮室毀壞 生禾黍其子傷之 欲哭則不可 欲泣爲其近婦人 乃作麥秀之詩 以歌詠之 其詩曰 麥秀漸漸兮 禾黍油油 彼狡僮兮 不與我好兮 殷民聞之 皆爲流涕。”

28) 高麗僉議贊成事尹澤卒 澤以左副代言掌銓選 麗王命官其子 澤啓名器至重 賢勞淹滯 敢私臣子 澤早孤不識父面 時祭上塚必哭盡哀 又於方策見述父子之情 未嘗不垂涕 常佩一囊 得異味必盛以獻母 嘗遊燕京 道見有金百兩 以待其主 其主泣謝而去 平生布被弊席晏如也。

② 왜구가 고려 하동군에 쳐들어 왔다. 진주사람 정임덕이 일찍이 이 고을을 지키고 있었는데 적이 이르렀을 때 임덕이 마침 병에 걸려 있었다. 그의 두 아들 유와 손이 아버지를 안고 달아나자 적이 쫓아 왔다. 유가 말 위에 올라 몇 명을 쏘아 죽이자 적이 감히 앞에 나서지 못했는데 갑자기 왜구 하나가 칼을 뽑아 들고 돌진하면서 임덕의 뺨을 찌르자 손이 몸으로 가리면서 또한 네 명을 베고 힘써 싸워 물리쳐 임덕은 죽음을 면했으나 손은 드디어 적에게 죽임을 당했다. 안렴사가 고려 임금에게 아뢰어 유가 중부사승을 배수하였다. 29)

③ 고려 수성사람 조희참이 그 어미를 부축하여 경산부 성으로 왜적을 피하고자 하여 낙동강에 이르렀는데 배가 없어 건널 수 없었다. 왜적이 쫓아오자 그 어미가 말하기를 “나는 늙고 또한 병들었으니 죽어도 후회가 없다. 너는 말을 달려 화를 면하거라.”라고 하자 희참이 말하기를 “어머니가 계신데 내가 어찌 가리오.”하고 드디어 어머니와 함께 말 사이에 숨어 있었다. 왜적이 그 어미를 찌르려고 하자 희참이 몸으로 가리다가 적에게 해를 당하였고, 어미는 가까스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경산부 사람 배중선의 딸이 왜적에게 쫓기다가 그 아이를 업고 소야 강에 이르렀을 때 강물이 불어 있었다. 배씨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물 가운데로 뛰어 들었는데 적이 강 언덕에 이르러 활을 당기며 말하기를 “내가 오면 죽음을 면할 수 있다.”하니 배씨가 “나는 선비의 딸이다. 일찍이 열녀는 지아비를 두 번 바꾸지 않고 죽는다고 들었다.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자 적이 그 아이를 활로 쏘아 맞혔다. 적이 또 활을 당기며 아까처럼 이야기 했으나 끝내 나오지 않고 해를 당하였다.

영산 사람 낭장 신사건의 딸이 나이 16세에 적에게 쫓기다가 아버지를 따라 강에 이르러 배에 올라 장차 건너려고 할 때 적들이 갑자기 다가와 배 안의 사람을 거의 다 죽였는데 그 아버지만 해를 입었다. 왜적 하나가 그 딸을 잡고 배에서 내리자 딸이 말하기를 “너는 내 아버지를 죽였으니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차라리 죽을지 언정 너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고 드디어 적을 발로 차 넘어뜨리니 적이 노하여 드디어 죽였다.

체복사 조준이 도당에게 문서로 보고하여 말하기를 “세 사람의 절개와 효도는 실로 인륜의 의표가 되는 것이니 가히 그 문에 정려를 하여 후세 사람들을 권하여야 합니다.”라고 하고 드디어 비석을 세워 그 일을 기록하였다. 30)

29) 倭寇高麗河東郡 晉州人鄭任德 嘗戍是郡 及賊至 任德適被疾 二子愈悉擁父走避 賊追及之 愈上馬射殺數人 賊不敢前 忽有一賊 奮劍突進 刺任德頰 悉以身蔽之 且斬四人 力戰却之 任德得免 悉竟沒於賊 按廉使以聞麗王顯 拜愈爲宗簿寺丞.

30) 高麗守城人曹希參 扶其母欲避倭於京山府城 行至洛東江 無船不得渡 賊追及之 其母曰 吾老且病 死無悔矣 汝其走馬而免 希參曰 母在予何往 遂與母伏於田間 賊欲刃其母 希參以身蔽之 爲賊所害 母得以免 京山府人 裴仲善之女 爲倭所逐 負其兒至所耶江 江水方漲 裴度不能脫 投入水中 賊至江岸 持滿注矢曰 爾來可免死 女曰 吾書生之女 嘗聞烈女不更二夫之死 不爲汝所欲 賊射之中其兒 賊引滿又語如前 竟不出遇害 靈山人郎將辛斯典之

유교국가를 표방하던 조선사회에서 유학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忠·孝·烈的 사례를 들어 백성을 계도하는 일은 국가적 시책 중의 하나였다. 1431년 (세종13)에 「三綱行實圖」가 간행된 것도 이러한 의도의 소산이다.

2) 기록 대상의 확대

이 저술은 특성상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기록하는 것이 상례지만 그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 백성이라도 그 행위가 만인의 교훈이 될 수 있다면 수록하였다.

④ 고려 삼사우사 김광재(김태현의 아들이다)가 한가로이 거하며 어미를 봉양할 때 조식으로 예를 다하였으며 어미가 돌아가자 시묘 살이를 법대로 마쳤다. 매년 집에서 제사 지낼 때 호느껴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고려 임금의 이것을 듣고 가상히 여겨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경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생각하는데 만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자 광재가 마침 오래된 병을 앓고 있었는데 옆에서 겨드랑이를 부축하여 임금을 뵈었다. 왕이 “나이와 모습은 심히 쇠약하지는 않은데 어찌 이러한 병이 걸렸는가?” 하며 오래 안타까워하였다. 광재는 행동이 돈독하고 효성스러우며 우애 있었고, 집에서는 종사하는 산업이 없었다. 좌우에 거문고와 책을 두고 편안하였다. 임종에 처에게 말하기를 “남자가 부인의 손을 끊지 않는 것이 예이니 여러 노비를 거느리고 물러가서 소리를 높이거나 빨리 말하여 나를 흔들지 마라.”고 하였다. 즐하였는데 시호는 문간이다.<sup>31)</sup>

⑤ 고려의 어느 백성의 형제가 함께 가다가 아우가 황금 두 덩이를 주어 그 중의 하나를 형에게 주었다. 양천강에 이르러 같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 아우가 갑자기 물에 황금을 던지자 형이 괴상히 여겨 물으니 답하기를 “내가 형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돈독하였는데 이제 황금을 나누어 주면서 홀연히 형을 꺼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상서롭지 않은 물건이니 강에 던져 있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라고 하자 형이 “네 말이 참으로 옳다.” 라고 하고 또한 물에 황금을 던졌다. 그 때에 같이 배를 탄자들이 다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으므로 그들의 성명과 고을을 묻은 사람이 없다.<sup>32)</sup>

女 年十六爲賊所逐 遂父至江 乘舟將渡 賊卒至殺舟中人殆盡 其父亦被害 有一賊執其女下船 女曰 汝殺吾父 不共戴天之讐也 寧死不汝從 遂扼賊吭蹴而倒之 賊怒遂殺之 體覆使趙浚 馳書都堂曰 三人節孝 實是人倫之儀表 可旌其門 以勸來者 遂立石記其事.

31) 高麗三司右使金光載(台鉉之子也) 閑居養母 朝夕盡禮 母沒廬墓終制 每祭於家 涕泣不止 麗王棋聞而嘉之 使人諭曰 思與卿語 可使得見乎 光載時抱宿疾 扶掖上謁 王曰 年貌非甚衰 何有斯疾也 嘆惜久之 光載敦行孝悌 居家不治生產 左右琴書湛如也 臨沒謂其妻曰 男子不絕婦人之手 禮也 可率衆婢退 毋高聲疾言 以擾我也 卒諡文簡.

위의 인용에 등장하는 김광재의 일화는 효성스러운 면도 있지만 세상의 명리에 초연한 삶이 부각되는 내용이다. 그런데 김광재와 달리 ‘兄弟投金’의 설화에 등장하는 형제는 비록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이지만 그들의 행위가 교훈으로 삼기에 충분함으로 수록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편찬자들의 시각이 일부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

3) 서술의 세밀함

「治平要覽」은 사실이나 인물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최대한 세밀하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왕조를 개국한 초기에 편찬된 것이어서 서술상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쓰고자 하였다. 崔瑩에 대한 예를 들어 본다.

⑥ 대간전범의 청에 따라 최영을 주살했다. 최영은 풍모와 자태가 크고 뛰어났고 팔의 힘이 다른 사람보다 지나쳤으며 강직하고 충성스러우면서도 깨끗하였다. 매번 군진에 나가 적을 대적할 때 정신과 기운이 편안하고 한가로웠으며 활과 돌이 좌우에서 쏘여 날아들어도 거의 두려워하는 빛이 없었으며 병사가 한 걸음이라도 물러나는 자가 있으면 다 목을 베어 반드시 승리하기를 기약하였기 때문에 크고 작은 백 여 차례의 전투에서 공이 있어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으므로 나라는 그를 의지하여 편안하였고 백성들은 그 덕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 최영이 16세에 무 최원직이 임종할 때 경계하여 말하기를 “황금 보기를 둘 같이 하라.”라고 하였는데 최영이 이 유언을 몸에 차고 다녔다. 최영은 생산하는 일을 일삼지 않았으므로 집이 누추하였고 입고 먹는 것이 검소하였다. 비록 신분이 대장군과 재상을 지냈으며 손으로 병사를 장악하고 있었으나 관절이 이르지 않았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그 청빈함에 복종하였다. 큰 행태를 지탱하고자 힘썼으며 자세한 이치를 궁구하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휘하의 병사들을 거느렸으나 얼굴을 아는 자가 수 십 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성품이 고집스러웠고 배우지 않아 학술이 없었으며 모든 일을 자기 뜻으로 판단하였고 사람을 죽여 위엄을 세우기를 좋아하였다. 그리고 늙어서는 식견과 생각이 뒤섞여 망녕되게 요동을 공격하는 군사를 일으켜서 만세의 죄인이 되었다. 형벌을 받을 때에도 말씨와 얼굴빛이 태연자약했는데 그 때 나이 73세였다. 간대부 윤소종이 최영을 논하여 말하기를 “공이 한 나라를 덮었으나 죄는 천하에 가득

32) 高麗有民兄弟偕行 弟得黃金二錠 以其一與兄 至楊川江 同舟而濟 弟忽投金於水 兄怪而問之 答曰 吾愛兄甚篤 今以分金 忽萌忌兄之心 此乃不祥之物也 不若投諸江而忘之 兄曰 汝言誠是 亦投金於水 時同舟者 皆愚民 故無有問其姓名邑里云.

쳤다.” 라고 하였는데 세상에서 명언으로 여겼다. 그가 죽는 날에 송도 사람들이 시장을 파하였으며 원근에서 듣는 자들과 거리의 아이나 골목의 아낙네들까지 다 눈물을 흘렸으며 시체가 길가에 있었는데 다니는 자들이 말에서 내렸다. 33)

최영은 이성계와 정치적 견해가 달라 대답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를 상대적으로 폄하하여 기록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위의 기록을 보면 최영의 장단점을 가감없이 수록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용의 마지막 부분은 당시 고려인들의 최영에 대한 존경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제외시킬 수도 있는 일이지만 누락시키지 않고 포함해 놓았다.

이와 유사한 예가 鄭夢周에 관한 기사이다.34) 여기에서는 정몽주와 이성계의 미묘한 갈등과 정몽주 암살 진행과정 등이 실려 있다. 그런데 말미에는 정몽주의 충성심과 국사 처리 능력을 칭송하고, 이에 덧붙여 정몽주를 실질적으로 살해한 태종이 그의 충절을 높이 사서 영의정에 추증하고 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렸으며 두 아들에게 관직을 하사한 사실을 수록함으로써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4) 개국의 정당성 옹호

「治平要覽」이 편찬된 세종대도 왕조의 초창기였으므로 조선조의 개국 정당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려말의 혼란한 정치상황을 부각시키는 일이 우선되었는데, 이로 인해 辛旽에 관한 기록이 다수 수록되어 있으며, 禡王과 昌王의 난잡한 행실도 대거 수록되어 있다.

⑦ 고려의 폐왕 우는 기생무리를 궁중에 모아 밤늦도록 잔치를 벌여 거의 빈 날이 없었다. 환관 두세명을 데리고 밤에 궁궐의 담을 넘어 말을 타고 나가 밖에서 잠을 자니 여러 신하들이 왕이 있는 곳을 몰라 크게 놀랐는데, 잠시 뒤에 돌아왔다. 왕이 일찍이 말하기를 “사관들이 나의 과실을 기록한다고 하는데 만약 발견되면 반드시 죽이리라.” 고 하자 이때부터 사관들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다. 35)

33) 「治平要覽」卷 150. “高麗誅崔瑩從臺諫典法之請也 瑩風姿魁偉膂力過人 剛直忠清 每臨陣對敵 神氣安閑矢石 交於左右 略無懼色 戰士却一步者 悉斬期以必勝 以故大小白戰所向有功 未嘗一敗 國賴以安人 受其賜 初瑩年十六 父元直臨終戒之曰 見金如石 瑩佩服遺勳 不事產業 居第湫隘 服食儉素 雖身都將相手握重兵 關節不到世服 其清務持大體不究 細理 終身將兵 麾下軍士 所識面者不過數十 然性少黷 不學無術 凡事斷以己意 喜殺立威 及其衰耄 識慮顛錯 妄興攻遼之師 遂爲萬世罪人 臨形辭色自若 年七十三 諫大夫尹紹宗 論瑩曰 功蓋一國 罪滿天下 世以爲名言 及死之日 都人罷市 遠近聞者 至于街童巷婦 皆爲之流涕 屍在道傍 行者下馬”

34) 「治平要覽」卷 150, 참조

그리고 이에 반하여 개국의 주체였던 이성계와 이방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강조되었다.

⑧ 우리 태조는 천성이 어질고 후덕하였으며 모든 친족과 돈독하고 화목하게 지내서 가까운 친척이 아니더라도 어루만지니 매우 두터웠다. 배다른 형인 원계와 배다른 아우인 화와 우애가 지극히 떳떳하였는데 항상 함께 거처하였다. 공민왕이 태조를 공경하고 중히 여겼으므로 화도 총애하고 대접하여 항상 궁중에 있었다. 태조가 화의 모친인 정안옹주 김씨를 맞이하여 서울의 집에 모셔다가 매우 삼가며 섬겨서 뵈을 때 마다 항상 계단 아래에서 무릎을 꿇었다.<sup>36)</sup>

⑨ 우리 태종이 신의왕후의 상을 치를 때 제릉의 곁에서 시묘 살이를 하였는데 매번 태조를 보러 서울에 갈 때마다 길 위에서 비 오듯 눈물을 흘려 그치지 않았다. 태조의 집에 이르렀을 때 우연히 느낀 바 있어 문득 통곡을 하니 태조와 좌우의 사람들이 감동하고 슬퍼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태조가 항상 그 효성을 칭찬하였다.<sup>37)</sup>

이와 같이 「治平要覽」은 유교적 가치를 천명하기 위한 목적을 시작으로 편찬되었으며, 수록 대상에 한계를 두지 않고 다양한 인물의 행적을 기록하였으며 시대적 특성상 개국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서술의 객관성을 얻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 4. 引用書目 分析

「治平要覽」은 150권이라는 방대한 내용을 서술하기 위하여 116권에 달하는 서적을 인용하였다. 「治平要覽」의 凡例의 마지막 조의 인용서목 상에는 118항

35) 「治平要覽」卷150. “高麗廢王禍 集群妓宮中 爲長夜之樂 殆無虛日 率宦官二三人 夜踰宮牆 乘馬而出直宿 諸臣不知王所之 大驚 俄而乃還 王嘗曰 吾聞史官記吾過失 若見則吾必殺之 由是史官不敢近”

36) 「治平要覽」卷150. “太祖天性仁厚 敦睦九族 雖袒免之外 撫之甚篤 與庶母兄元桂 庶母弟和 友愛極至常 常共處 恭愍王敬重太祖 故寵待和常在宮中 太祖迎和母定安翁主金氏 至京邸事之甚謹 進見之時 常跪於階下”

37) 「治平要覽」卷150. “我太宗服 神懿王后之喪 廬于齊陵之側 每爲觀太祖 入京於道上 雨泣不絕 至太祖邸 遇有所感 輒痛哭 太祖左右 莫不感愴 太祖常稱其孝”

목이 열거 되어 있으나 이 중 40번째의 호삼성주와 107번째 이백주는 서명이 아닌 인명이다. 이 중 호삼성주는 일반적으로 「自治統監音注」를 말한다. 따라서 이백주를 제외하면 117종이며 중국에서 편찬된 110종과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7종이다.

이를 四庫全書의 四部分類法에 의하여 분류해보면 經類에 「左傳」을 비롯하여 16종, 史類에 「史記」를 비롯하여 61종, 子類에 「性理群書」를 비롯하여 25종, 集類에 「朱文公集」을 비롯하여 14종이 있다. 주목되는 사실은 「自警編」, 「資治通鑑」, 「通鑑綱目」, 「宋史全文」, 「性理大全」, 「朱文公集」, 「宋朝事實」, 「太平廣記」 등 송나라에서 편찬한 도서가 43종이나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용서목에서는 「高麗史」가 주목된다. 처음 태조 원년(1392년)에 鄭道傳과 鄭摠이 왕명으로 「高麗國史」의 편찬에 착수하여 태조 4(1395)년에 완성하였으나 여기에는 정도전 등 건국 주체세력의 역사인식이 강하게 반영되었으며 편찬 자료의 제약으로 내용이 부실하고 사실과 인물에 관한 평가가 공정치 못하였다. 이로 인해 태종 14(1414)년에 河崙과 卞季良 등이 改修에 착수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세종 원년 柳觀, 변계량 등이 계승하여 세종 3년에 완성하였다. 이후, 세종 5(1423)년에 再修하여 다음 해에 완성된 것이 「讎校高麗史」이다. 그리고 세종 20(1438)년에 申槩·安止 등에 의하여 세종 24(1442)년에 「高麗史全文」이 완성, 인쇄까지 되었으나 분포가 중지되고 다시 개수가 행해졌다. 마지막으로 세종 31(1449)년에 金宗瑞·鄭麟趾 등이 착수하여 문종 원년에 「高麗史」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여기의 인용서목에 나오는 고려사는 「高麗史全文」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引用書目에는 「遼史」와 「金史」가 있는데 정작 서술을 할 때는 遼朝와 金朝가 빠진 것은 성리학적 명분을 지키고자 했던 편찬자들의 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sup>38)</sup> 인용서목을 표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38) 김경수, 앞의 논문, p.21.

引用書目 分類

| 序號 | 書名     | 四部分類      | 主題   | 收錄期間        | 著者      |
|----|--------|-----------|------|-------------|---------|
| 1  | 左傳     | 經部 - 春秋類  | 春秋類  | BC722~ 481  | 左丘明(魯)  |
| 2  | 公羊傳    | 經部 - 春秋類  | 春秋類  | BC722~ 481  | 公羊高(戰國) |
| 3  | 穀梁傳    | 經部 - 春秋類  | 春秋類  | BC722~ 481  | 穀梁俶(魯)  |
| 4  | 胡傳     | 經部 - 春秋類  | 春秋類  |             | 胡安國(宋)  |
| 5  | 春秋大全   | 經部 - 春秋類  | 春秋類  | BC722~ 481  |         |
| 6  | 國語     | 史部 - 別史類  | 中國歷史 | BC722~ 481  | 左丘明(魯)  |
| 7  | 家語     | 子部 - 儒家類  | 中國哲學 |             | 王肅(魏)   |
| 8  | 戰國策    | 史部 - 別史類  | 中國歷史 | 元王(周)- 始皇 秦 | 劉向(漢)   |
| 9  | 史記     | 史部 - 正史類  | 中國歷史 | 黃帝 - 武帝(漢)  | 司馬遷(漢)  |
| 10 | 史記詳節   | 史部 - 抄史類  | 中國歷史 | 黃帝 - 武帝(漢)  |         |
| 11 | 楚詞     | 集部 - 楚辭類  | 中國文學 |             | 劉向(漢)   |
| 12 | 說苑     | 子部 - 小說家類 | 中國文學 |             | 劉向(漢)   |
| 13 | 新序     | 子部 - 小說家類 | 中國文學 |             | 劉向(漢)   |
| 14 | 吳越春秋   | 史部 - 別史類  | 中國歷史 |             | 趙曄(漢)   |
| 15 | 呂氏春秋   | 經部 - 春秋類  | 中國哲學 |             | 呂不韋(陳)  |
| 16 | 十二國史   | 史部 - 別史類  | 中國歷史 |             | 孫昱      |
| 17 | 官子     | 子部 - 雜家類  | 中國哲學 |             | 管仲(齊)   |
| 18 | 荀子     | 子部 - 雜家類  | 中國哲學 |             | 荀卿(周)   |
| 19 | 儀禮經傳通解 | 經部 - 禮類   | 禮類   |             | 朱熹(宋)   |
| 20 | 淮南子    | 子部 - 雜家類  | 中國哲學 |             | 劉安(漢)   |
| 21 | 西京雜記   | 子部 - 小說家類 | 中國文學 | 前漢雜記        | 葛洪(漢)   |
| 22 | 通鑑外紀   | 史部 - 編年類  | 中國歷史 |             | 劉恕(宋)   |
| 23 | 資治通鑑   | 史部 - 編年類  | 中國歷史 | 太古-五代       | 司馬光(宋)  |
| 24 | 通鑑綱目   | 史部 - 編年類  | 中國歷史 | 太古-五代       | 朱熹(宋)   |
| 25 | 少微通鑑   | 史部 - 編年類  | 中國歷史 | 太古-五代       | 江贊(宋)   |
| 26 | 十八史略   | 史部 - 抄史類  | 中國歷史 | 太古-宋末       | 曾先之(唐)  |
| 27 | 古今通要   | 史部 - 抄史類  | 中國歷史 | 太古-五代       | 胡庭芳(元)  |
| 28 | 歷年圖    | 史部 - 別史類  | 中國歷史 |             | 司馬光(宋)  |
| 29 | 前漢書    | 史部 - 正史類  | 中國歷史 | 前漢          | 班固(漢)   |
| 30 | 後漢書    | 史部 - 正史類  | 中國歷史 | 後漢          | 范曄(宋)   |
| 31 | 前漢詳節   | 史部 - 抄史類  | 中國歷史 | 前漢          | 呂祖謙(宋)  |
| 32 | 後漢詳節   | 史部 - 抄史類  | 中國歷史 | 前漢          | 呂祖謙(宋)  |
| 33 | 三國志    | 史部 - 正史類  | 中國歷史 | 魏, 蜀, 吳     | 陳壽(晉)   |
| 34 | 晉書     | 史部 - 正史類  | 中國歷史 | 晉           | 房玄齡(唐)  |
| 35 | 南史     | 史部 - 正史類  | 中國歷史 | 南宋, 齊, 梁, 陳 | 李延壽(唐)  |

|    |                   |            |        |                   |            |
|----|-------------------|------------|--------|-------------------|------------|
| 36 | 北史                | 史部 - 正史類   | 中國歷史   | 魏,北齊,周,隋          | 李延壽(唐)     |
| 37 | 隋書                | 史部 - 正史類   | 中國歷史   | 隋                 | 長孫無忌,魏徵(唐) |
| 38 | 新舊唐書              | 史部 - 正史類   | 中國歷史   | 唐                 | 歐陽修(宋)     |
| 39 | 五代史               | 史部 - 正史類   | 中國歷史   | 後梁,後唐,後晉,後漢<br>後周 | 薛居正        |
| 40 | 胡三省注<br>※資治通鑿音注   |            |        |                   | 胡三省(元)     |
| 41 | 源委<br>※道南源委錄      | 史部 - 紀事本末類 | 中國歷史   |                   | 朱衡(明)      |
| 42 | 唐名臣奏議<br>※宋史卷之162 | 史部 - 詔令奏議類 | 中國政治   | 唐                 | 馬總         |
| 43 | 帝範                | 史部 - 雜史類   | 經學     | 唐                 | 唐太宗        |
| 44 | 貞觀政要              | 史部 - 直觀類   | 中國法制   |                   | 吳兢(唐)      |
| 45 | 范祖禹唐鑑             | 史部 - 別史類   | 中國歷史   | 唐, 五代             | 范祖禹(宋)     |
| 46 | 明皇遺事<br>※開元天寶遺事   | 子部 - 藝術類   | 中國文學   |                   | 王仁裕(五代)    |
| 47 | 韓文                | 集部 - 別集類   | 中國文學   | 文集                | 韓愈(唐)      |
| 48 | 柳文                | 集部 - 別集類   | 中國文學   | 文集                | 柳宗元(唐)     |
| 49 | 文選                | 集部 - 總集類   | 中國文學   | 秦,漢,齊,梁           | 蕭統(梁)      |
| 50 | 通志                | 史部 - 政法類   | 中國政法類  |                   | 鄭樵(宋)      |
| 51 | 疑獄集               | 史部 - 政法類   | 中國法制   |                   | 和凝(五代)     |
| 52 | 杜氏通典              | 史部 - 政法類   | 中國政法類  |                   | 杜佑(唐)      |
| 53 | 武經                | 子部 - 兵家類   | 戰術, 戰略 |                   | 曾公亮(宋)     |
| 54 | 百將傳               | 史部 - 傳記類   | 中國人傳記  |                   | 張預(宋)      |
| 55 | 將鑑博議              | 史部 - 傳記類   | 中國人傳記  |                   | 戴溪(宋)      |
| 56 | 通鑑續編              | 史部 - 編年類   | 中國歷史   | 唐, 宋              | 陳卿(元)      |
| 57 | 宋史全文              | 史部 - 正史類   | 中國歷史   | 宋                 | 脫脫(元)      |
| 58 | 宋元節要              | 史部 - 編年類   | 中國歷史   | 宋, 元              | 薛應旗(明)     |
| 59 | 續資治               | 史部 - 編年類   | 中國歷史   | 宋, 元              | 商輅(明)      |
| 60 | 太平廣記              | 子部 - 小說家類  | 中國文學   |                   | 李昉(宋)      |
| 61 | 冊府元龜              | 子部 - 類書類   | 中國歷史   |                   | 王欽若(宋)     |
| 62 | 文獻通攷              | 史部 - 政法類   | 中國政法類  |                   | 馬端臨(元)     |
| 63 | 宋名臣奏議<br>※歷代名臣奏議  | 史部 - 詔令奏議類 | 中國政治   | 宋                 | 黃淮,楊士奇等(明) |
| 64 | 宋朝事實              | 史部 - 別史類   | 中國歷史   |                   | 李攸(宋)      |
| 65 | 言行錄               | 史部 - 傳記類   | 中國人傳記  |                   | 朱熹(宋)      |
| 66 | 東軒雜錄<br>※東軒筆錄     | 史部 - 雜史類   | 中國文學   |                   | 魏泰(宋)      |

|     |                   |           |        |       |                   |
|-----|-------------------|-----------|--------|-------|-------------------|
| 67  | 太平政要              | 史部 - 雜史類  | 政治學    |       | 揭傒斯(元)            |
| 68  | 歸田錄               | 史部 - 雜史類  | 中國歷史   |       | 歐陽修(宋)            |
| 69  | 明善錄               | 史部 - 雜史類  | 中國歷史   |       | 徐繼發               |
| 70  | 戊辰脩史              | 史部 - 雜史類  | 中國歷史   |       | 黃震(宋)             |
| 71  | 丁未錄               | 史部 - 雜史類  | 中國歷史   | 宋     | 李丙                |
| 72  | 自警編               | 子部 - 儒家類  | 道德, 倫理 |       | 趙善璩(宋)            |
| 73  | 宋季三朝政要            | 史部 - 直觀類  | 政治學    |       |                   |
| 74  | 宋季事實              | 史部 - 雜史類  | 中國歷史   |       |                   |
| 75  | 江湖紀聞              | 子部 - 小說家類 | 中國文學   | 宋     | ※民間歌謠             |
| 76  | 湖海新聞              | 子部 - 小說家類 | 中國文學   |       | 元好問(金)            |
| 77  | 真西山集              | 集部 - 別集類  | 中國文學   |       | 德秀(宋)             |
| 78  | 大學衍義              | 經部 - 四書類  | 中國哲學   |       | 真德秀(宋)            |
| 79  | 讀書記               | 子部 - 儒家類  | 中國哲學   |       | 真德秀(宋)            |
| 80  | 文章正宗              | 集部 - 別集類  | 中國文學   |       | 真德秀(宋)            |
| 81  | 明道集               | 集部 - 別集類  | 中國文學   |       | 程顥(宋)             |
| 82  | 朱文公集              | 集部 - 別集類  | 中國文學   |       | 朱熹(宋)             |
| 83  | 經濟文衡              | 子部 - 雜家類  | 社會, 經濟 |       | 滕珙(宋)             |
| 84  | 性理群書              | 子部 - 儒家類  | 中國哲學   |       | 胡廣(明)             |
| 85  | 近思錄               | 子部 - 儒家類  | 中國哲學   |       | 朱熹(宋) ;<br>呂祖謙(宋) |
| 86  | 小學(全帙)            | 子部 - 儒家類  | 中國哲學   |       | 朱熹(宋)             |
| 87  | 古文真寶              | 集部 - 總集類  | 中國文學   |       | 黃堅(宋)             |
| 88  | 綱目發明書法<br>※綱目續麟 中 | 子部 - 藝術類  | 書藝     |       | 張自勛(明)            |
| 89  | 文粹                | 集部 - 總集類  | 中國文學   | 唐     | 姚鉉(宋)             |
| 90  | 致堂管見<br>※讀史管見     | 史部 - 雜史類  | 中國文學   |       | 胡寅(宋)             |
| 91  | 呂氏博議              | 經部 - 春秋類  | 春秋類    |       | 呂祖謙(宋)            |
| 92  | 遼史                | 史部 - 正史類  | 中國歷史   | 遼     | 脫脫(元)             |
| 93  | 金史                | 史部 - 正史類  | 中國歷史   | 金     | 脫脫(元)             |
| 94  | 元史                | 史部 - 正史類  | 中國歷史   | 元     | 宋翊(明)             |
| 95  | 名臣事略              | 史部 - 傳記類  | 中國人傳記  |       | 蘇天爵(元)            |
| 96  | 國朝文類              | 集部 - 總集類  | 中國文學   |       | 蘇天爵(元)            |
| 97  | 性理大全              | 子部 - 儒家類  | 中國哲學   |       | 胡廣(明)             |
| 98  | 列女傳               | 史部 - 傳記類  | 中國人傳記  |       | 劉向(漢)             |
| 99  | 爲善陰騭              | 子部 - 儒家類  | 倫理     |       |                   |
| 100 | 孝順事實              | 子部 - 儒家類  | 倫理     |       |                   |
| 101 | 事文類聚              | 子部 - 類書類  | 類書     |       | 祝穆(宋)             |
| 102 | 詩學大成              | 集部 - 總集類  | 中國文學   | 六朝- 明 | 李攀龍               |

|     |      |          |       |    |                 |
|-----|------|----------|-------|----|-----------------|
| 103 | 禮記註  | 經部 - 禮類  | 中國哲學  |    | 鄭玄(漢)           |
| 104 | 尙書纂註 | 經部 - 書類  | 中國哲學  |    | 蔡沈(宋)           |
| 105 | 論語集註 | 經部 - 四書類 | 中國哲學  |    | 朱熹(宋),<br>胡廣(明) |
| 106 | 論語輯釋 | 經部 - 四書類 | 中國哲學  |    | 程樹德(清)          |
| 107 | 李白註  |          |       |    |                 |
| 108 | 韻府群玉 | 經部 - 小學類 | 辭典    |    | 陰時夫(元)          |
| 109 | 大廣玉篇 | 經部 - 小學類 | 辭典    |    | 陳彭年(宋)          |
| 110 | 韻會   | 經部 - 小學類 | 中國語辭典 |    | 黃公紹(宋)          |
| 111 | 世年譚  | 集部 - 詞曲類 | 中國文學  |    | 曾先之(宋)          |
| 112 | 三國史記 | 史部 - 正史類 | 韓國歷史  |    | 金富軾(高麗)         |
| 113 | 東國史略 | 史部 - 編年類 | 韓國歷史  |    | 權近(朝鮮)          |
| 114 | 高麗史  | 史部 - 正史類 | 韓國歷史  |    | 鄭麟趾(朝鮮)         |
| 115 | 孝行錄  | 史部 - 傳記類 | 韓國人傳記 |    | 權近(朝鮮)          |
| 116 | 益齋亂藁 | 集部 - 別集類 | 文集    |    | 李齊賢(高麗)         |
| 117 | 三綱行實 | 子部 - 儒家類 | 倫理    |    | 俟循(朝鮮)          |
| 118 | 吏文謄錄 | 史部 - 政法類 | 外交一般  | 朝鮮 | 承文院(朝鮮)         |

## 5. 결 론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 정리하여 결론으로 제시한다.

1. 「治平要覽」은 1441년(世宗 23, 辛酉) 6월에 세종이 확실한 편찬 의지를 가지고 당시 知中樞院事였던 鄭麟趾에게 편찬을 명하여 5년 뒤인 1445년에 완성한 150권의 巨帙이다. 이 저술과 양적으로 견줄 수 있는 서책은 1434년(세종 16)에 편찬된 「資治通鑑訓義」와 1438년(세종 20)에 149권으로 완성된 「綱目通鑑訓義」 정도가 있을 뿐이다. 「治平要覽」은 중국과 한국의 역사 중에서 군주에게 鑑戒가 되는 내용이나 백성들에게 권선징악의 유교적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내용들을 선별하여 수록해 놓은 저술이다.

2. 세종이 이 방대한 저술의 편찬을 시도한 것은 크게 역사를 통하여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것을 후대의 통치자들에게 전해 주고 싶은

의도의 실현이며, 작게 「自警編」을 읽은 뒤 이와 유사한 저술을 편찬하고자 하는 뜻과 자국의 역사를 자세히 알고자 하는 자주적 각성이 합치되었기 때문이다.

3. 「治平要覽」은 편찬 직후에 간행된 것은 아니다. 세조는 「治平要覽」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좌승지였던李克堪에게 추가교정을 맡겼다. 그러나 「治平要覽」이 인쇄된 것은 그 후인 中宗代이다.

4. 「治平要覽」은 유교적 가치를 천명하기 위한 목적을 시작으로 편찬되었으며, 수록 대상에 한계를 두지 않고 일반 백성에게까지 확대하여 인물의 행적을 기록하였으며 시대적 특성상 개국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최대한으로 서술의 객관성을 얻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5. 「治平要覽」은 117종에 달하는 서적을 인용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宋代의 史書와 性理書들이 주로 인용된 것이 주목된다. 이는 유교국가를 지향하고 성리학을 치국의 이념으로 삼았던 세종대의 실상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 <참고문헌>

- 「世宗實錄」.
- 「中宗實錄」.
- 「仁祖實錄」.
- 「肅宗實錄」.
- 「英祖實錄」.
- 「正祖實錄」.
- 「四庫全書叢目」.
- 「自警編」.

「治平要覽」영인본. 李佑成 編.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4. (전 39책)

金慶洙. “世宗朝 「治平要覽」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대학원, 1986.

金允植. “世宗朝의 圖書 編纂 및 刊行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대학원, 1992.

金一煥. “「資治通鑑」과 「資治通鑑綱目」이 朝鮮初期 歷史學에 미친 影響.” 「弘益史學」 제5집(1993. 6). 55-88.

손보기. 「세종시대의 인쇄 출판」. 서울: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 1994.

이우성. 「국역치평요람」. 서울: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 2001.

崔承熙. 「世宗朝의 文化와 政治」. 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世宗朝 文化의 再認識」. 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к с і